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50 호

2006. 11. 25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 ~2502/FAX : (02)400-2505

丙戌年 秋享大祭 奉行



順天金氏 中央宗親會는 丙戌年 秋享大祭를 全南順天市 주암면 주암리 始祖墓域에서 全國의 많은 宗親들이 參禮한 가운데 2006년 11월 21일(陰曆 10月 1日) 嚴肅히 奉行하였다.

평소 崇祖精神이 敦篤한 한화그룹 升淵 會長은 獻花와 元老 宗親들을 위하여 車를 提供하여 行事に 많은 도움을 주었다.

始祖墓 祀執事 分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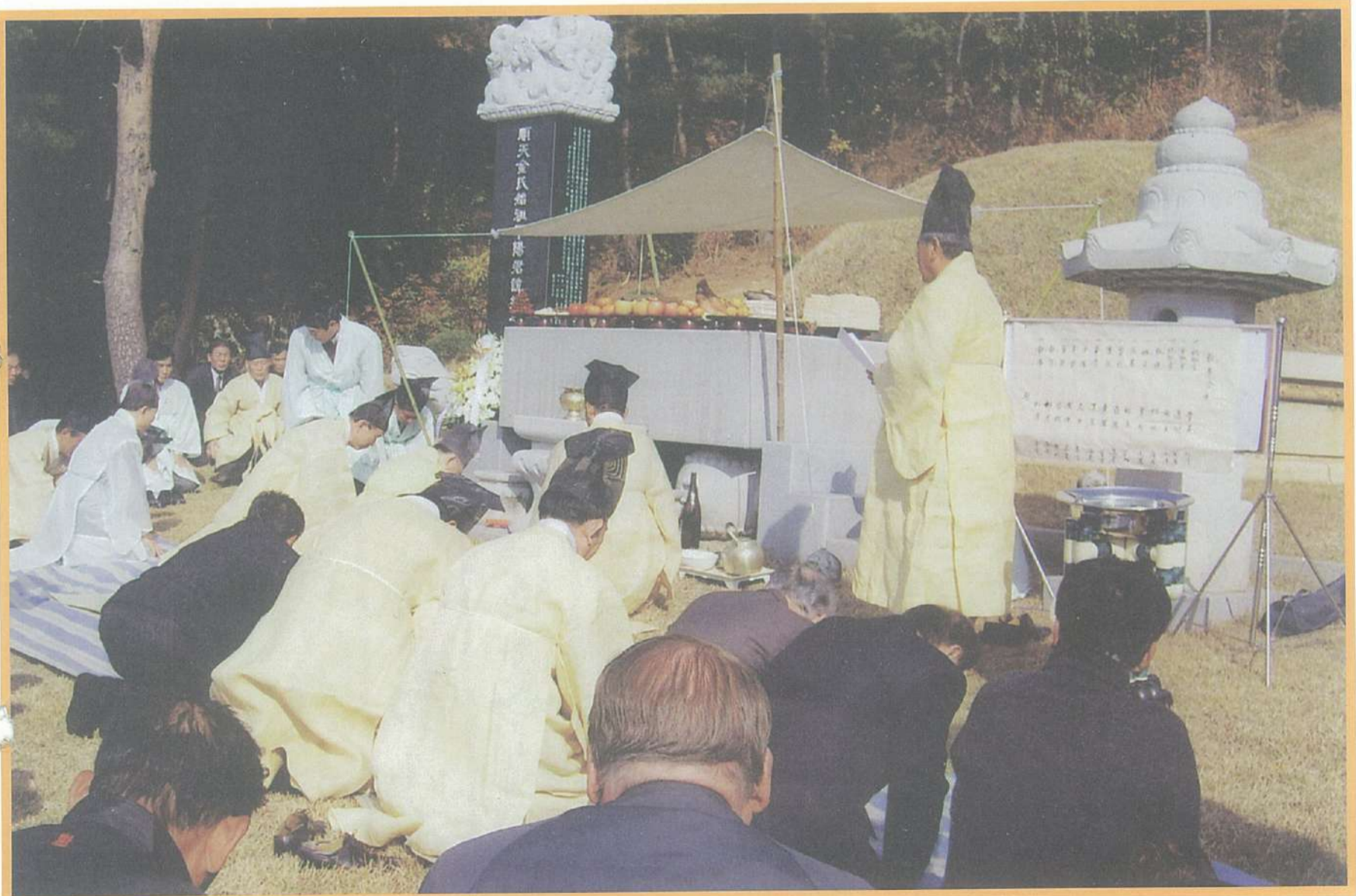
- 初獻官 : 學元
- 亞獻官 : 道淵
- 終獻官 : 東玉
- 祝 官 : 東哲
- 執 禮 : 相默

壇祭 執事 分定

- 初獻官 : 鳳遠
- 亞獻官 : 商應
- 終獻官 : 柄鮮
- 祝 官 : 東哲
- 執 禮 : 相默

추향제 헌성금

동영(대구) 병풍	경남(안산) 100,000원
창연(서울) 타월	보령종회(보령) 100,000원
행엽(서울) 현관 1점	상의원공종회(고양) 100,000원
학원(고양) 50,000원	장수(영광) 20,000원
남은공종회(해남) 100,000원	순천종회(순천) 100,000원
절도사공종회(용인) 100,000원	대전충남종회(대전) 100,000원
안동종회(안동구담) 100,000원	상훈(전주) 30,000원
문경종회(문경) 100,000원	광희(광주) 제수
동석(문경) 30,000원	김우영(부산) 슬리퍼 50켤레
도연(문경) 30,000원	김성복 : TV 29인치 1대
부산종회(부산시) 100,000원	부산종친회 : 거울 1점
진사공종회(해남) 100,000원	우보건설 : 삼문현관 1점
영희(대구) 30,000원	



中央宗親會 第17期 定期總會

中央宗親會는 2006년 11월 20일 全南 順天市 주암면 주암리 同源齋 嘉樂堂에서 100여명의 代議員들이 參席하여 盛大히 舉行되었다.

이날 總會는 式順에 따라 鳳煥 幹事長의 開會辭에 이어 國民儀禮와 始祖 및 始祖에 대한 默念 그리고 宗親會 發展에 크게 貢獻한 宗親들에게 施賞을 하고 鳳煥 幹事長으로부터 業務報告와 景南 監事로부터 監事報告가 있었다.

이어 2006년도 決算審議와 2007년도 豫算審議를 上程하여 深度있게 審議하고 可決하였다.

相容 常任副會長으로부터 향후 事業計劃을 세밀히 보고 받고 화기에애한 가운데 代議員들의 날카로운 質疑와 성실한 答辯으로 討議를 마치고 事業承認을 認准 받았다.

이날 鍾植 中央宗親會長은 인사말을 통하여 허허벌판에서 中央宗親會를 創立하여 順天金門의 求心點이 되어 문중을 中興시키기 위하여 渾身を 다 바쳤다고 回顧하고 杞란만장했던 順金의 千年 사직이 이제 威風堂堂하게 盤石위에 安着하고 우리 後孫들이 子子孫孫 繁榮을 謳歌하며 千年 향기 속에 우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이곳 聖地 同源齋에 모여 조상의 일가슴에 새겨 救國의 先鋒者로 나라의 기둥이 되고 문중을 빛내는 대들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였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人間의 言語로서 形言할 수 없는 증상모락을 받으면서도 子孫萬代에 길이 물려 줄 玲瓏한 大同譜와 世蹟總覽을 編纂하여 반질하였고 한화그룹 升淵會長은 國公立 圖書館과 大學圖書館 및 精神文化院을 비롯한 관계연구소와 美國을 비롯한 海外까지 贈送本을 배포하여 國內 史學者들은 물론 海外同胞들로부터 뜨거운 讚辭와 激勵을 받을 때마다 順金의 位相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고 있으며 더욱이 오늘 美麗한 外三門을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言及하고 향후 始祖 墓域 聖域化 사업은 제1차 靖화사업이 끝나고 제2차 사업인 의삼문

개축 단청 조경공사를 竣工하고 제3차 사업인 講堂과 管理舍를 옮겨 新築하고 연못을 擴張 改築하여 八角亭을 新築함으로써 文化財로서의 當당한 면모를 과시할 것이며 이 모든 계획은 文化財 專門委員들의 監修하에 推進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제 과거의 타성을 벗어나고 자발적으로 宗事に 參與하여 함께 擘畫하여 일하자고 力說하였다.

금년도 定期總會에 屏風을 증정한 元老書藝家 東泳 宗親과 타월을 贈呈한 昌淵 顧問에게 박수로 和答하였다.

受賞者 名單

- 功勞牌 : 김창연 顧問, 김상복 同源齋有司, 김정태 심상사有司
- 感謝牌 : 起昌族譜社 社長 정광순, 安東宗親會 副會長 김병덕, 김윤환



한화그룹 升淵 회장의 獻誠金으로 同源齋 제2차 정비공사 竣工



順天金氏 中央宗親會(회장 鍾植)는 同源齋 周邊 제2차 정비공사를 全南道文化財 保護 條例 第31條에 준용하여 文化財 委員會가 推薦하는 文化財 專門 설계사인 (주)삼진설계사무소가 設計하고 文化財 專門 건설업체인 우보건설주식회사가 施工社로 選定되어 文化財委員들의 諮問下에 2006년 6월에 첫 삼을 든 지 100여 일인 2006년 10월 3일 제2차 공사를 竣工하였다.

美觀한 外三門이 그 姿態를 드러내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秀麗한 同源齋는 순천시 주암골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새롭게 단장된 수목원에 세워진 碑들, 여기가 順金의 魂이 살아 숨쉬는 뿌리요, 聖地요, 어머니의 품보다 따뜻한 마음의 故鄉임을 證明하고 있다.

※ 第2次 同源齋 整備工事 竣工 內譯 ※

- 外三門 및 夾門 改築 工事

완벽한 피복흔증으로 건조된 목재를 도편수로 하여금 정일 치목 작업하여 文化財 規例에 의한 傳統韓屋 방식으로 건축되었음.

- 丹靑 工事

資材를 檢收하여 긋기 모르다칭 方法에 의하여 文化財 規例에 따라 施工되었음. 특히 수준 높은 影堂壁畫를 施工하였음.

- 蓋瓦 工事

影堂 및 同源齋 지붕기와가 부식되고 漏水 상태라 改補修하였음.

- 境內 整備 工事

樹木園은 자연적으로 들레를 담장물에 맞추어 石築 조성하고 수목은 剪枝하여 樹種에 따라 配列移植 하였으며 停車場 표지와 排水管을 設置하는 등 완벽하게 보수정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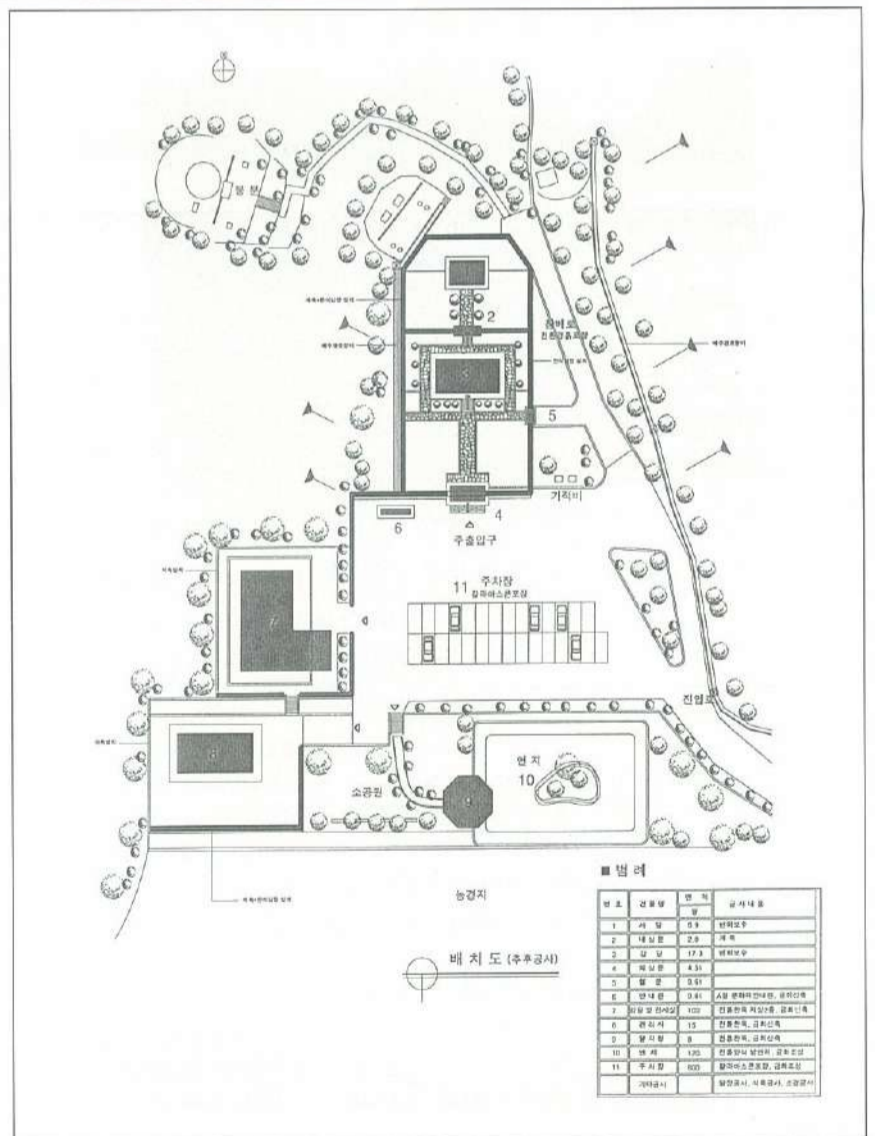
- 沿革碑 改碑 및 功績碑 建立

沿革碑는 龍冠 거북 座臺에 7尺碑로 하고 功績碑는 龍冠의 연대에 무궁화 座臺이며 順天金氏 마크를 부착한 平臥碑로 세웠음.

※ 鍾植 中央宗親會長 第2次 工事完了 告由祭 奉行 ※

2006년 11월 20일 鍾植 中央宗親會長을 비롯하여 行燁 教授, 書藝家 東泳宗親, 相容 常任副會長(祝官) 등 많은 종친들이 參席하여 嚴肅하고 敬虔하게 告由祭를 奉行하였다.

本行事는 한화그룹 會長 升淵宗親의 獻誠金으로 外三門 改築을 비롯한 丹靑 造景工事 등을 마무리하였으므로 告由祭를 奉行하였다.



※ 第3次 同源齋 整備工事 計劃 ※

1. 강당 및 전지실 이전 신축 : 전통목조 한옥
2. 내삼문 개축 및 담장공사
3. 관리사 이전 개축 : 농가주택 기준
4. 단지조성 : 주차장공사 및 배수로공사(소공원 조성, 문화재 안내판)
5. 연지 조성공사
6. 팔각정 신축공사
7. 조경공사

모난돌과 둥근돌



'모난 돌이 정맞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돌을 쪼아 다듬거나 구멍을 뚫을 때 모난 돌이 맨 먼저 끝이 뾰족한 정에 맞는다는 뜻이다. 성격이나 말과 행동이 원만치 못하면 남의 공격을 받으니 모나게 나서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 원했던 한마디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우선으로 한 우리 조상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내 집안 형은 나만 만나면 입버릇처럼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 살아야 한다고 즉 인간관계를 원만이 하라는 훈계를 귀가 아프도록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서인지 행동은 물론이고 가슴속에 담아둔 말을 꼭꼭 눌러 참으며 뒤늦게나마 지금까지 숨죽여 살아오느라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다. 아니 두루 뭉실한채 살아오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처럼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일부러 모난 돌이 강하다는 것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은 남의 눈에 빨리 띄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글 쓰는데도 개성이 톱 튀는 문장을 보이고 싶어 한다.

근간 어느 회보에 실은 내용인 즉 기부금 반환요구인듯한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물론 생각에 따른 사정일수도 있겠지만 기부금 반환요구는 동서고금에도 그러한 예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옛날에 祖上積善之者は 必有天恩緣得이나 돌려받는 者は 天罰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는 분명 세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생각 밖의 돌출행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주고 뺏어 먹으면 엉덩이에 빨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 주고 뺏는 것은 정도가 아니니 절대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인정 깊은 교훈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에서 극복하기 힘든 탐욕이며 소유욕에 휩싸여진 허욕으로 미치광이 같은 우를 범한 듯싶다. 그러나 그가 모난돌과 같이 당당하고 개성 있는 글에 한편 열려스럽게도 걱정까지 해진다.

요즘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내 집안 형처럼 둥근돌이 되기만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있는 사이에 그 틈새를 눈치껏 비집고 들어오는 침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나없이 모난돌이 되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일 것 같다. 둥근돌이 되려거든 정월대보름달을 닮고 모난돌이 되려거든 완벽하게 튀어나야 되리라.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감히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모난돌, 둥근돌에 대한 진리를 돌이켜 되새겨 볼 일이다.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영남좌도 의병대장 근시재 선생 순국 기념비 제막



2006년 10월 21일 11시 경북 안동 오천군 자리, 광산김씨 후조당 종택에서 경상북도 지사, 안동시장, 국회의원, 안동향교 예안향교 예천 용궁향교 성군관 유생, 인근 의병활동에 참여한 각 성씨의 종손, 유림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우리 순천김문에서는 사촌 석운씨를 비롯하여 안동의 원걸 덕수, 구담에서 동성, 봉환등이 참석하였다.

안동은 예로부터 유교의 성지이며 충과 효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선비정신의 요람입니다. 따라서 국가관, 윤리관이 투철한 고장으로 역사상 어느 지역보다 충의 열사를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온 강산을 피로 물들이며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분연히 선비들이 일어나 안동 열읍의 향병으로 꺾기하고 근시재(김래)를 항병 대장에 추대하였습니다.

순천김문은 '윤명', '윤사', '윤한' 삼형제가 참여

당시 조정에서는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선생께서 국난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항리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선비들이 그 역할을 다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후세들이 근세에 이르러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구국 독립운동의 선봉에 나선 것은 나라와 역사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병대의 우부장을 맡으신 금역당 배용길 선생의 기록을 보면 지난해 왜적들이 침략하여 분탕질로 온 나라가 누란에 휩싸여 천년사직이 무너지는데 누구하나 의로운 깃발을 들지 않았습니...

- 대 장 : 김해
좌 부 장 : 이정백
우 부 장 : 배용길
정 제 장 : 유복기, 김운사, 김운
영 병 장 : 삼지
예안 정제장 : 김택용
의성 정제장 : 김사원, 심흥도
군위 정제장 : 이영남
군위별장 : 장사진
의흥 정제장 : 강충립, 박문윤, 이호인, 홍경승
내성 영병장 : 남정순
비안 정제장 : 조서
연 병 장 : 우인경, 권복원
조 전 장 : 박호인
근 후 장 : 권극인
복 병 장 : 이선충, 감사권, 조성중
좌 위 장 : 김익
중 위 장 : 김운사
무 위 장 : 신심
군량부총 : 이영도
전향유사 : 흥위, 권행가
모 의 사 : 김운명, 금응훈, 이보, 노경필
장 서 : 김광, 금몽일, 김운안, 금경 정조, 신경립, 권득가, 배득인, 권공
군 관 : 김평, 이적, 오금, 배산두
병음군관 : 김태

학사 김용 및 김운명, 김운사, 이형남이 모였고, 배용길, 이용타 신경립, 권익형, 금몽일, 권종윤, 권태일, 권덕성, 권중광 등은 입하면 동쪽 기사리의 송정에 모여 거병을 상의하고 배용길, 김용을 소모유사로 삼았다.

8. 13(경자) : 입하에서 일항의 사위가 기약도 없이 있었는데 모인 사람이 수백이 되고 생원 김운명을 대장으로 삼고 진사 배용길을 부장으로 김운사, 이형남을 정제유사로 이용타, 남우, 권태일, 김득기를 장서로 삼고 김득연, 유복기를 향군도감으로 삼았다. 부의 동쪽은 권늘이 주장이 되고 서쪽은 권기가 주장토록 하고 권익형은 북쪽을 맡고 김약은 남면을 맡게 하였다.

8. 18(을사) : 대장 이하 여러 유사가 향교에 모였다. 생원 이정백이 횡성으로부터 왔다. 대장 김운명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혜와 소견이 얕으며 신체적 능력도 높고 둔하며 이정백은 생각도 깊고 뜻도 있으니 빨리 바꾸어 일을 성공토록 하자"고 희망했다. 여러 사람의 의론이 하나로 뭉쳐 드디어 대장으로 삼기로 하였다. 향교에서 진을 만들고 병기를 수리하고 기계를 고쳤다.

이때에 예안의 김해 영천의 박록, 안동의 배용길 등이 나란히 의병을 일으켰고 우도에서 김면, 객재우, 정인홍 등이 또한 의병에 펼쳐 나와 영남일도가 왜적에 굴하지 않았음은 의병이 힘이었다.

8. 20(정미) : 안동, 예안 사람과 의성, 의흥, 군위 사람들이 일직에 모여 동맹하고 승문원 정자 김해를 대장으로 삼고 안동의 이정백 진사 배용길을 좌, 우 부장으로 삼았다. 병호는 안동 열읍향방이라 부르기로 했다. 義라는 글자를 스스로 부르기가 겸연쩍어 향방이라 했던 것이다. 안동을 본진으로 삼기로 했다.

9. 3(병술) : 군중에서 식사를 마치고 대장이 진에 나가 부, 오를 가추게 한 다음 약속을 밝혔다. 김운사, 유복기, 김약을 본진 정제장으로 삼고 박호인은 조전장 권극인은 척후장, 이선충, 감사권, 조선중을 복병장에 김익을 좌위장에 이영도를 군량도총, 김택용을 예안 정제장에 심지를 영병장으로 감사원, 심흥도는 의성 정제장에 신심은 우위장, 이영남은 군위 정제장, 장사진은 별장, 흥위, 권가행은 전향유사, 강충립 박문윤, 이호인 홍경승 등은 의흥정제장으로 삼았다.

9. 4(정해) : 안동생원 김운명, 예안생원 금응훈, 군위참봉이보, 선산생원 노경필을 모의사로 삼았다.

9. 5(무자) : 생원 김강, 생원 금몽일, 대구부사 김운한, 금경, 권강, 정조, 신경립, 권득가를 장서로 삼았다.

10. 23(기유) : 안동 정제장 김운사를 승진시켜 중위장으로 삼았다. 복병장 이선충, 조전장 권호인은 사납고 용맹스러운 군관 8인과 정병 130인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갔다.

10. 28(갑인) : 대장 좌우부장이 각기 군관과 척후장 권극인을 거느리고 복병진에 도착해서 다시 정병을 추려 나누어 보냈는데 좌부장은 장서 김운안을 이끌고 본진으로 돌아가 군사를 추렸다. 우부장은 계원진으로 달려가 정병을 추려 함께 떠나도록 하고 대장은 도 지휘대장의 진소에 모여 병사를 의론했다.

* 이후로 이듬해 계사년 5월 19일 경주 진중에서 세상을 버리실 때까지 기록들이 있지만 지면상 이쯤에서 마감한다.

영남좌도 의병 진용

오천군자리에 순국 기념비

400여년이 지난 지금 선생을 비롯한 당시에 참전했던 여러 선현들을 위한 추모의 표석하나 없었음은 우리 후손 모두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이제 그런 표석하나 이곳에 세우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른 끝이 아니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안동 정신을 바로 세우는 좌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2세손 봉환 -

향병 일기

임진왜란 당시 진중일기로 우리 순천김문에서 관련된 기록만 여기에 실는다.

4. 28(정사) : 왜병에게 상주가 떨어졌다. 도원사 신립 종사관 김여물은 패전으로 전사했다.

7. 19(병오) : 안동의 왜적이 풍산, 구담촌으로 출진했다. 병사 박진이 안동부에 들어오니 배용길은 일으킨 군사 200여명을 즉시 넘겨 주었다. 缺 권응수가 영천에서 전투에 이겨 왜병 300여 급의 목을 베었으며 불에 타고 짓밟혀 죽은 놈이 무수했다고 말한다.

8. 5(임진) : 권영길이 초유사 김성일의 초유문을 갖고와 배용길에게 보이니 배용길은 즉시 안동 일음의 사류에게 돌려서 여강 서원에 모이도록 약속했다. 김운영, 김운사 형제가 함께 여강으로 가고 오직 유복기, 정조는 김응과 함께 나가기로 했으나 가기도 전 글을 내어 전법에서도 모이기로 약속했다.

8. 9(병신) : 전현감이유, 전현령권춘란, 전한림



節齋公 秋享祭

2006년 11월 22일(음10월2일)忠南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275 節齋公 墓域에서 전국각지에서 50여 宗親들이 參禮한가운데 持平公祖 都總制公의 享祀를 엄숙히 奉行하고 이어서 節齋公派 中興祖이시며 世宗祖때 六鎭을 開拓하시고 國家에 큰 功을 세우셨으며 萬古忠臣이신 節齋公祖의 秋享祭가 吉柱 宗親의 執禮로 初獻官에 吉元宗孫, 亞獻官에 司元, 終獻官에 喆元 宗親으로 分定하여 奉行하였다

참의공조(承子珪자)는 節齋公祖의 被禍를막다가 殉節하셨고 그후293년후인 英祖23년에 復官되시고 父公墓下에 旌閭門을 세우게되었으나 後孫들의 無能으로 여태껏 享祀를 못올리다가 2006년 5월에 承珪祖(23世), 幸南祖(24世), 薰祖(25世), 混祖(26世)의 合同祭壇을 설단하고 癸酉被禍後 처음으로 享祀를 奉行하게되어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한이없으며 앞으로는 더욱 子孫의 道理를 다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 육진 개척(六鎭開拓)



尙衣院正公墓 移葬

六百年 가까이 城南市 板橋洞에 모셔서 后孫들 한결같이 香火를 올려온 尙衣院公派의 派祖이신 尙衣院正公의 墳墓 所在地가 都市開發地域으로 編入되어 不得已 移兆하게 되어 今年 9月 16日(陰閏7月24日) 先考 忠貞公墓와 이웃한 驪州郡 加南面 安金里 山 41番地 卯坐原으로 寫眞과 같이 모시었다.



忠貞公 時祭 蓮臺齋에서 奉行

丙戌年 忠貞公 時祭가 11월 24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蓮臺齋에서 載俊 忠貞公 宗會 會長을 비롯한 많은 後孫들이 參禮한 가운데 嚴肅히 奉行 되었다

이날 祭禮는 重鎭 宗親의 執禮로 初獻官에 載俊, 亞獻官에 學元, 終獻官에 東勳의 獻爵順으로 進행되었으며 參祀한 直系後孫들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위대한 遺訓을 받들기로 다짐했다



朝鮮孝子順天金公 在基 孝行碑 改豎

襄景公 16代孫 諱 在基公은 그 옛날 孝行이 至極하여 全羅道 任實과 朝鮮八道의 42人 儒林들이 朝廷에 薦擧하여 銀杯를 下賜받았고 儒林들이 "朝鮮孝子 金在基 之碑"라는 孝行碑를 公이 사시던 마을에 세웠으나 年久하여 碑閣이 落하여 당시 그 일을 主管했던 儒林들의 後孫 太在殷등이 改修할 일을 推進하여 全羅北道와 任實郡의 資金支援를 받아 公의 生家를 復元하고 碑石과 碑閣을 寫眞과 같이 改修하였다.

우리 後孫들 어찌 公의 遺德을 追慕하고 본받지 않겠는가.
(註)公의 行蹟 大同譜 ①589頁②과 世蹟總攬 378頁 參照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6년 8월 15일 ~ 2006년 10월 30일

부회장

- 1. 김철우 2006. 10. 25 경상북도 안동시

이사

- 1. 김덕수 2006. 8. 23 경상북도 안동시
- 2. 김정식 2006. 8.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3. 김대연 2006. 9. 1 고양시 덕양구
- 4. 김광휘 2006. 9. 1 광주광역시 서구
- 5. 김종원 2006. 10. 16 경기도 양주

대의원

- 1. 김현희 2006. 8. 28 전라남도 해남군
- 2. 김동구 2006. 8. 31 경기도 고양시
- 3. 김상윤 2006. 8. 31 전라북도 완주군
- 4. 김수영 2006. 9. 26 충청북도 청주시
- 5. 김동춘 2006. 9. 28 강원도 철원시

회원

- 1. 김종헌 2006. 8.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 김병선 2006. 8. 22 대전광역시 동구
- 3. 김복귀 2006. 8. 28 충청북도 충주시
- 4. 김상길 2006. 8.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 5. 김은식 2006. 8. 29 경기도 은평구
- 6. 김공원 2006. 8. 29 광주광역시 서구
- 7. 김용환 2006. 8.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 8. 김옥희 2006. 8. 30 경기도 안양시
- 9. 김상학 2006. 8.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 10. 김일천 2006. 8.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 11. 김창환 2006. 8.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2. 김진호 2006. 8. 30 서울특별시 상계동
- 13. 김성도 2006. 8. 30 경상남도 마산시
- 14. 김홍원 2006. 8. 31 서울특별시 도봉구
- 15. 김한희 2006. 8. 31 경기도 과천시
- 16. 김종구 2006. 8. 31 전라북도 전주시
- 17. 김창수 2006. 9. 1 서울특별시 마포구
- 18. 김춘희 2006. 8. 30 경상남도 사천시
- 19. 김식연 2006. 8. 31 경상북도 문경시

- 20. 김승희 2006. 9. 4 서울특별시 성북구
- 21. 김종하 2006. 9. 4 서울특별시 구로구
- 22. 김수연 2006. 9. 4 인천광역시 서구
- 23. 김종구 2006. 8. 31 경상북도 예천시
- 24. 김희진 2006. 9. 5 서울특별시 노원구
- 25. 김상근 2006. 9. 7 충청남도 천안시
- 26. 김동업 2006. 9. 6 경기도 안양시
- 27. 김익희 2006. 9. 7 서울특별시 서초구
- 28. 김연식 2006. 9. 6 경기도 용인시
- 29. 김재극 2006. 9. 8 경기도 의정부시
- 30. 김세원 2006. 9. 6 경상북도 영양군
- 31. 김지균 2006. 9.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 32. 김치균 2006. 9. 18 경상북도 안동시
- 33. 김동연 2006. 9. 19 경기도 고양시
- 34. 김정희 2006. 9. 20 충청북도 청주시
- 35. 김동학 2006. 9.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 36. 김종현 2006. 9. 19 경상북도 안동시
- 37. 김경환 2006. 9. 22 경기도 안양시
- 38. 김상식 2006. 9. 25 대구광역시 동구
- 39. 김임용 2006. 9. 25 대구광역시 동구
- 40. 김영일 2006. 9.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 41. 김낙훈 2006. 9. 25 경기도 고양시
- 42. 김재균 2006. 9. 29 경기도 수원시
- 43. 김형주 2006. 9. 29 광주광역시 금남로
- 44. 김창희 2006. 9. 29 경상북도 구미시
- 45. 김선균 2006. 9. 29 강원도 춘천
- 46. 김상기 2006. 10. 2 강원도 춘천
- 47. 김종영 2006. 10. 2 경기도 가평
- 48. 김장희 2006. 10. 9 전라북도 전주시
- 49. 김종영 2006. 10. 27 강원도 인제군

무명인

- 1. 2006년 8월 29일 국민은행/문경지점
- 2. 2006년 9월 4일 포곡농협/농업협동
- 3. 2006년 9월 6일 순천축협/해룡지점
- 4. 2006년 9월 19일 대구은행/영주지점
- 5. 2006년 10월 10일 농협/수원화서지점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54년간 한화가 쓰아 올린 희망과 행복의 불꽃!
그 불꽃 속에 더 큰 기대와 더 새로운 즐거움과 더 밝은 내일을 담아
당신의 가슴에 띄우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내일의 한화

